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과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완주 유치 확정

전북도-완주군 협업 ‘결실’ ... 2023 운영 목표

수소생태계 구축 등 탁월한 인프라·경쟁력 인정

전북도와 완주군이 국내 수소산업의 핵심기관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를 성공하면서 대한민국 수소산업을 이끌 선봉장으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굳혔다.

특히,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등을 통한 수소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다져온 전북도의 노력과 수소시범도시 선정, 국내 최대 규모 수소충전소 운영 등 내실을 다져온 완주군의 협력이 빛을 발하면서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간 협업의 성공 모델을 일궈내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전북도와 완주군은 17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후보지로 완주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되면서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 검사가 법적 의무화됨에 따라 각종 수소용품 검사와 수소산업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국내 최고 핵심기관으로 떠올랐다.

앞으로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수소충출기와 수전해 설비, 수소 연료전지, 수소용품 제조설비 등 검사와 수소용품 평가·인증사업을 추진하며, 기술개발 지원과 안전성 확보로 수소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게 된다.

수소용품만을 위한 검사지원 기관 건립은 국내 최초이며, 전 세계적으로

도 유일하다.

센터는 수소 완제품 인증 검사를 시작으로 소재와 부품까지 총괄 지원할 것으로 보여 향후 소재·부품·장비 등 이른바 ‘소부장 산업’ 육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2023년 운영을 목표로 500억 원가량의 사업비가 투자돼 완주 테크노밸리 제2단계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기에 수소안전 전담기관인 ‘수소안전기술원’도 함께 입주할 것으로 보이는 등 향후 상주 인력만 120여 명에 육박하고, 수소관련 기업의 집적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완주군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들어서면 전북이 탄소산업에 이어 국내 수소경제도 선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북은 탄소 산업과 수소 산업의 양 날개를 달고 전반적인 경제구조 혁신은 물론, 관련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 보니 전국적으로 유치 경쟁이 치열했다.

전국 11개 지자체가 센터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서류심사, 현장심사와 대면평가를 거쳐 완주군이 최종 입지로 선정됐다.



송하진 도지사(사진 오른쪽)과 박성일 완주군수가 17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완주 유치와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송 지사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완주군은 평가과정에서 수소관련 산업과 집적화된 연구기관, 수소 시범도시 선정, 국내 최대 규모 수소충전소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전북도가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통한 수전해 및 연료전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했다.

전북도와 완주군이 갖춘 수소 산업

의 탄탄한 토대와 함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협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의 그린수소 생산기반과 완주군의 수소 저장 및 활용기술, 그리고 이번 평가·인증기능의 결합으로 전북의 수소산업은 그 어떤 지역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됐다”며 “수소산업을 전북의 대표산업인 탄소산업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북의 경제체질을 바꾸는 효자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전북도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에 힘입어 이번엔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완주군에 수소산업을 집적화해 새만금 그린수소 클러스터와 연계를 통해 수소경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2월 도내 고용률 59.7%

전년동월대비 1.7% 상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중에도 전북의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호남통계청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2월 전북 지역 고용률은 59.7%로 전년 같은 달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는 92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4,000명(2.7%)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53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만2,000명(2.2%), 여자가 39만4,000명으로 1만2,000명(3.2%)이 각각 늘었다.

산업별 취업자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작년 동기보다 7,000명(8.7%), 농림어업은 9,000명(6.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7,000명(2.2%) 각각 증가했으며, 제조업은 1,000명(-1.1%) 감소했다.

실업률은 2.3%로 전년 동월보다 0.6%p 하락했고, 실업자는 2만2,000명으로 5,000명 줄었다.

도내 경제활동인구는 총 95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9,000명(2.0%) 증가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1.1%로 1.3%p 상승했다. /김윤상 기자

## ‘재학생 4명 코로나19 확진’

### 전북대, 전면 비대면 수업 전환

전북대학교는 재학생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한다고 17일 밝혔다. 대학 생활관에서 지낸 이들은 최근 코로나19 검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대학 측은 코로나19 추가 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대면·비대면 방식을 혼합했던 수업을 모두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먼저 일주일 동안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대면 수업 재개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이 머문 생활관은 소독을 마치고 방역 당국 허가를 받아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비대면 강의로 인한 학생과 교원의 혼선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어촌 특화발전으로 ‘희망 어촌’ 키운다

도,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완료

스토리텔링 개발·내수면 활성화 지원 등

산업 추진 동력을 제고하고, 수산물 소비 변화 등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자생적 대응 능력을 배양해 어촌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촌특화지원센터’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관할 지역의 어촌의 인구 감소, 어업중심 단일 경제구조의 다변화를 위해 현장밀착형 전담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기

관으로 현재 전국에 10개소가 운영 중이다.

전북도는 지난 2018년 지정을 받았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을 맡아 수산·어촌분야의 전문 인력과 어촌특화 업무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업 외 소득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어촌 6차산업과 주민의 자립적 성장 발전을 위해 어촌마을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어촌경제 변화의 기반을 다져왔다.

이용선 도 수산정책과장은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의 역량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것이다”며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경영컨설팅, 판로확보 등 밀착 지원함으로써 6차산업화를 통한 어촌발전 기를 마련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